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화해하리 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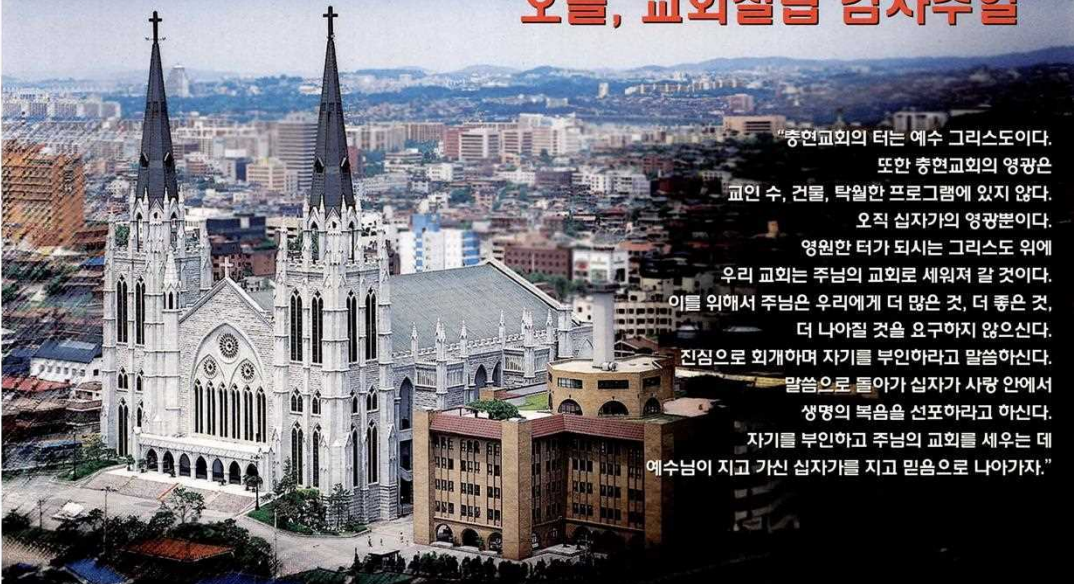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전홍용 편집: 양재웅

교회의 참된 터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교회설립 감사주일



“충현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또한 충현교회의 영광은
교인 수, 건물, 탁월한 프로그램에 있지 않다.
오직 십자가의 영광뿐이다.
영원한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나아질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다.
말씀으로 돌아가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성령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신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오늘은 교회가 설립된 지 57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님의 교회로 충현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은총을 베푸신 주님께 진실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성찬식(4~5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쫓기신 삶과 흘리신 피를 심령에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2·3부는 가족연합예배로 드리지며, 찬양 예배 시 있을 특별 찬양을 통해서 지난 57년간 죄인들의 교회에 십자가의 은총을 베푸신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문안인사와 마지막 말씀들 (로마서 16:1~27)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개별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분파주의자들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바울의 전도사역에 지대한 도움을 주었던 26명의 이름을 거명한다. 바울은 이를 통해 서로 존경하며 섬기며 위로하는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로마교회는 바울의 2차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이다. ‘교회의 일꾼’은 보편적으로 초대교회의 ‘집사 직분’을 의미한다. 남녀 구분 없이 집사로 임명된 교회의 제재와 행정의 모습도 보여 준다(딤후 3:11,13). 비록은 로마교회를 도울 수 있는 자를 16:2로 이방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 특히 전도단들을 실질적으로 도왔다(롬 16:3~5; 행 18:18,26; 딤후 4:19; 골 4:15). 여기에 나오는 26명은 율로든 양으로든 바울의 전도사역에 지대한 도움을 주었으며, 각자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복음의 사역에 전력하였다. 이 사람들을 로마교회에 소개함으로써 바울은 주

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동역자들 간에 서로 합심하여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함을 강조하는 구속사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로마교회의 순종의 소식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소망하는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고전 14:20; 빌 2:15). 그럼에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권고하였다(롬 16:17). 진리의 복음에서 벗어난 거짓 복음을 가리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었다(빌 3:18~20). 이들의 주장은 세상의 가치를 기준할 때 모두 맞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유익이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은 이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롬 16:18).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롬 16:19~20).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은총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한다(창 3:15; 롬 8:2,17, 15:33).

바울은 로마교회에 디모데를 소개(롬 16:21~23)한 뒤, 서신을 대필하는 디모데를 언급하였다. 이어지는 로마서 16:25~27은 축도 형식의 장엄한 송영으로써 로마서를 통하여 전하려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선교의 핵심과 복음의 정수 그리고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 증거되었음을 밝혔다(갈 1:12; 엡 1:9~10).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온 이방인에게 전파케 하시며 그들로 믿어 순종케 하신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SOWING THE SEED

⁽³⁾And He spoke many things to them in parables, saying, "Behold, the sower went out to sow;

⁽⁴⁾and as he sowed, some seeds fell beside the road, and the birds came and ate them up. ... ⁽⁶⁾"And others fell on the good soil and yielded a crop, some a hundredfold, some sixty, and some thirty.

⁽⁹⁾"He who has ears, let him hear."

(Matthew 13:3~9)

The Word of God is continually being scattered around the world. As a farmer sows his seed, so it is the Christian's responsibility to spread God's Word. Sometimes our proclamation efforts don't produce much fruit because they fall by the roadside, between rocks, and even amongst thorns. Nevertheless, it is our job to keep sharing the good news. Jesus shared today's sower parable to a large crowd that surrounded Him by the seashore. Not only did they miss the point, but His disciples also did not fully understand. Jesus then explained to His disciples. "To you it has been granted to know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 but to them it has not been granted" (Mt. 13:11). Then Jesus gave His disciples a detailed explanation about the parable of the sower (Mt. 13:18~23). The secrets of heaven are revealed in the sown seed! It is so important for us to understand and receive this secret. During Jesus' time, there were a lot of Bible-believing people, but they didn't understand the secrets of heaven. They understood the secrets of this earth quite well. John the Baptist cried out to them.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Mt. 3:2). He knew that they were trying to acquire things of earthly value, and even understood that they thought they had heavenly treasure. He boldly told them to repent. How does one repent? When you receive the Word of God you can repent. When Jesus began his earthly ministry, He preached.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Mt. 4:17). John the Baptist and Jesus really scattered the gospel. The seed of the gospel is imperative to life. How do you respond to this great seed? Most people are hindered by the seed. Let's look at the four different responses to the seed that Jesus explained to His disciples.

The first response Jesus mentions concerning the sown seed is really no response. Jesus told the crowd. "Behold, the sower went out to sow; and as he sowed, some seeds fell beside the road, and the birds came and ate them up" (Mt. 13:3~4). Jesus told His disciples concerning this. "When anyone hears the word of the kingdom and does not understand it, the evil one comes and snatches away what has been sown in his heart. This is the one on whom seed was sown beside the road" (Mt. 13:19). When the blessing opportunities come for those to hear the Word of God, the devil desperately tries to take it away. Non-Christians are dead in their trespasses and sin. They live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according to the devil's power. The spirit of disobedience is within them, so it isn't hard for the devil to snatch away the seed (Eph. 2:2).

The second response Jesus talks about concerning the sown seed is an emotional response. Jesus told the crowd. "Others fell on the rocky places, where they did not have much soil; and immediately they sprang up, because they had no depth of soil. But when the sun had risen, they were scorched; and because they had no root, they withered away" (Mt. 13:5~6). Jesus told His disciples concerning this. "The one on whom seed was sown on the rocky places, this is the

man who hears the word and immediately receives it with joy; yet he has no firm root in himself, but is only temporary, and when affliction or persecution arises because of the word, immediately he falls away" (Mt. 13:20~21). Those who receive the seed with joy but don't put Jesus first in their lives soon find out that the world holds more value for them. They quickly walk away from Jesus when trouble comes, and troubles always come. Any church that longs for earthly things will discover that the secrets of heaven will be far away from them. Leaders who mislead fill believers' eyes with darkness.

The third response Jesus talks about concerning the sown seed is a worldly response. Jesus told the crowd. "Others fell among the thorns, and the thorns came up and choked them out" (Mt. 13:7). Jesus told His disciples concerning this. "And the one on whom seed was sown among the thorns, this is the man who hears the word, and the worry of the world and the deceitfulness of wealth choke the word, and it becomes unfruitful" (Mt. 13:22). Everyone who desires fame and wealth more than Jesus will lose the seed. Pride makes the world's remedies to sin more prominent than God's ways.

The last response Jesus talks about concerning the sown seed is a fruitful response. Jesus told the crowd. "And others fell on the good soil and yielded a crop, some a hundredfold, some sixty, and some thirty" (Mt. 13:8). Jesus told His disciples concerning this. "And the one on whom seed was sown on the good soil, this is the man who hears the word and understands it; who indeed bears fruit and brings forth, some a hundredfold, some sixty, and some thirty" (Mt. 13:23). What is good soil? Good soil is denying yourself, taking your cross, and following Jesus only by faith. Letting God feed and grow you, and allowing Him to do all things, make for very good soil. The Word of God has tremendous power, more power than anyone or anything. Will you allow God to provide for you? God says. "For as the rain and the snow come down from heaven, and do not return there without watering the earth and making it bear and sprout, and furnishing seed to the sower and bread to the eater; so will My word be which goes forth from My mouth; it will not return to Me empty, without accomplishing what I desire, and without succeeding in the matter for which I sent it" (Is. 55:10~11). Amen.

My dear friends, the Word of God produces great fruit in believers. Do you know what kind of fruit we are talking about? Galatians 5:22~23 say.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Salvation is the yield and constant supply of spiritual fruit. With the fruit of the Spirit you join the body of Christ. I know Jesus has given you wonderful fruit, great talent, but are you sowing the seed with it or are you using it for your own benefit? As we appreciate our many blessings, let us praise God for His Wonderful Word. Jesus said. "He who has ears, let him hear" (Mt. 13:9). Please examine your life and make sure you are sowing the seed! 

씨를 뿌릴 때

^㉓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㉔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 ^㉕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㉖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3~9)



김성관 목사

하 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세상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은 길 가나 바위 틈, 가시떨기에 떨어져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자신을 둘러싼 많은 무리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놓치고 있었고 제자들마저 이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느니라”(마 13:11).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마 13:18~23). 천국의 비밀이 뿌려진 씨 안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들이 천국의 비밀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그들은 이 땅의 비밀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3:2). 세례 요한은 그들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천국의 보화를 소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 같이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실제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씨앗이 뿌려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씨앗 때문에 실족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의 다른 반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반응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가 뿌려졌을 때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무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마 13:3~4). 예수님은 이에 대해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마 13:19).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축복의 기쁨이 주어질 때 마귀는 그것을 빼앗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죄와 허를 가운데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의 원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엡 2:2).

감정적인 반응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가 뿌려졌을 때 보인 두 번째 반응은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는 흙이 많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짝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마 13:5~6).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마 13:20~21). 기쁨으로 말씀의 씨앗을 받으나 예수님을

삼의 최우선으로 두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자신에게 훨씬 더 가치 있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금방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버립니다. 문제들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교회는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신자들의 눈을 어두움으로 가려버립니다.

세속적인 반응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가 뿌려졌을 때 보인 세 번째 반응은 세속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마 13:7).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마음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마 13:22). 예수님보다 명예와 부를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말씀의 씨앗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해결책을 더 그럴 듯하게 여깁니다.

열매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가 뿌려졌을 때 보인 마지막 반응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마 13:8).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마 13:23).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밭에 씨를 뿌리고 그러면 하지도 록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질 좋은 옥토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 그 누구보다도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서서 소출이 나게 하며 씨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줄과 같이 내 안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사 55:10~11).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어떤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22~23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구원이란 계속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통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열매와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놀라우신 말씀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마 13:9).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힘을 것을 결단하십시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십자가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일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드러지며, 5부예배는 절운이들 중심의 예배로 드러지고 있다. 그리고 주일찬양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은혜를 체험하며 주간에 매일 새벽기도회와 수요일 1·2부예배, 금요일양집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매년 7월의 성탄식(올수상 첫째 주일 및 성금요일)을 통해서 더 거든 십자가 사랑을 느끼고 있다.

• 주일날 예배드러올 때 내 마음은
통달통달 즐거워요.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과 말씀을 들으며 항상 기쁘고 재미있어요. (김대성, 초등1부)

•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중현교회에 와서 예배의 감격과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신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초등부 어린이들이 예배를 통해 온전케 되고,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주님의 역사하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종환 교사, 초등1부)



• 중현교회에 처음 올 때부터 말씀이 좋았습니다. 귀에 복삭 들어오는 성경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김아람, 새가족양육부)

• 보며 주기식의 화려한 프로그램보다는 말씀 위주의 설교와 내용이 일치감을 주며 주일예배에 꼭 참석하게 됩니다. 주일에 배워서 전체적인 말씀을 전해 듣고, 새가족부에서는 다시 말씀을

을 복습하고 있어요. (이승용, 새가족양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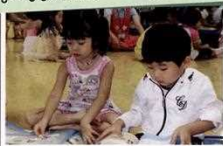
• 자주 성찬을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매 번 드릴 때마다 첫 사랑의 느낌을 회복하며 영적 거듭남을 되새깁니다. 또, 정갈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으로 임하게 됩니다. (김부영 교사, 장년2부)



교회학교는 영아부에서 소망부까지 연령에 따라 20개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3개 교육위원회로 조직되어 각 부서의 특성에 따라 전담 교역자와 헌신된 교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쏟으며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 20개 교회학교는 매 주일마다 하나로 통일된 복음 중심의 메시지가 담긴 설교를 듣고, 성경공부를 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다. 특히 각 부서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어떻게 성경(복음)을 배우고 있으신가요?”



• 선생님과 주일학교에 진행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미리 다음 주 설교 말씀을 준비해서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들과 스트레스 받는 상황일라도 예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김나리, 예배2부)



“예배를 드릴 때 누리는 은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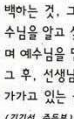


• 믿을 생활을 시작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설교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GBS 시간에 물어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 성경과 말씀이 더 가깝고 구체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주님이 나에게도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성경학, 대학부)



예수님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려 오셨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전력을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특히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세속적인 전도 방법과 물량을 동원하지 않고 168개 전도회를 중심으로 교회주변 전도에 집중하고 있다. 죽어가는 이웃들과 더불어 교회주변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교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땅의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순간까지 전도는 계속될 것이다.

•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 자체 이다. 저는 평소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학원 선생님께 “예수님을 믿으니 참 좋네요.”라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있는 제 삶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후, 선생님께서는 중현교회에 등록하셔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멘.”



(김정숙, 중등부)

“나에게 민족 복음화는 무엇인가요?”



•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기다림”이다. 저는 가족, 친구들에게 “교회에 오면, ~~ 것이 좋더라”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은혜가 있다”라고 전합니다.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도록 저를 사용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영접, 은혜라고 생각하기에,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서 영혼의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다림, 그리고 중보가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류정숙 교사, 장년1부)

• “각 지체가 믿음으로 세워짐으로써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다. 장년1부는 특히 직장생활로 바쁜 40~50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장 생활 중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게 될 때, 믿는 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 줘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직장 동료들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복음’과 ‘이웃’을 느끼기도 하는데 우리 각 지체가 예수님께 강하게 붙들려 있을 때, 그 모습을 통해 한 영혼, 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권정숙 교사, 장년1부)

• “사명주신 대로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것”이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기 전, 저는 남편에 대한 걱정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커피잔 옆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새벽기도 12:12를 생각하게 하시고, 사랑을 양보하 곁에서 여기신다는 말씀을 통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남편과 민족을 위해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 그 날을 기점으로 교회에서 삼성동자들 걸어가면서 전도자를 나누어 주며,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십니다. 서로 부리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믿기에 더욱 믿어 납니다. 총동원 전도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간지에 참여할 생각에 벌써부터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손옥희 은혜교회, 소망부)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청소년에서부터 거동이 어려운 연로하신 어른들까지 온 교회 성도들이 단기선교에 참여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 C.M.T.C.는 단기선교사의 영적인 훈련을 위하여 준비된 교육과정이다. 모든 총원교회 단기선교사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오직 복음만을 들고 세계로 나가는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으며, 영적훈련과 언어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외국인선교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예배와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의료선교부는 성도 중에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중심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의료로 섬기고 있다.

• 저는 저를 선교를 갔던 은 적이 있어 “어떻게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있나요?” 선교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곳 현지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갔다와서도 그 곳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세계선교에 동참하고 있어요. (김한나, 고등부)

• 주님의 인도하심이 세계 선교에 직접 동참하게 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곳에 직접 가서 몸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곳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 곳에 복음이 퍼질 수 있게 기도함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설희 집사, 청년2부)

• 회사 사정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총원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의 나라, 본국은 80%가 무슬림으로 전도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 속에서 믿음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는 주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국에 돌아가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어려움을 거리고는 생각하지만 주님을 붙잡고 생활하면서, 본국에 돌아가서 전도할 그날까지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해 배우고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이영희, CIS • 회신부)

이웃 사랑 말씀에 기초한 이웃 사랑, 자원봉사 속에서 나누는 진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오직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하여 봉사위원회, 자원봉사부는 물론 복지관, 기도원, 동산 및 자연장, 농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웃 사랑의 열매는 더 풍성해 질 것이다.

• 총원어린이집은 1991년 9월 개원 이래 정원 30명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총원어린이집은 저출산 시대임에도 언제나 대기가 차 있는 곳입니다. 교회부설 어린이집이라고 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편적인데 총원어린이집은 매일 아침마다 20분씩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체계적 신앙교육 때문에 자랑을 할 수 있는데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저희 어린이집의 큰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어린이도 총원어린이집에

세계 선교

오는데 저희가 강요하지 않아도 어린이집에서 교제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교회 부서를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이로 인해 온 식구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도 많 습니다. (조민희 집사, 총원어린이집)



• 총원복지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서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교육 및 재활, 치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기관입니다. 올해로 15주년을 맞은 총원복지관은 교회의 5대 목회 중의 하나인 ‘이웃 사랑’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지적, 자폐성 장애인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랑부에서 교육 및 재활, 치료의 서비스로 복지관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며 복지관 이용자 중에도 사랑부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의 5대 목회 중 하나로 설립된 터라 서비스 제공의 기본 정신은 십자가 복음전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원복지관은 장애인 뿐 아니라 바자회 수익금 등을 통해 강남구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도 학습지원 및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연결해 주는 도구역할로서의 총원복지관은 장애인이면 누구나 보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김정우 집사, 총원복지관)



게 관리하여 영적 재충전을 위해 오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희희 권사, 총원기도원)

• 총원자연장은 외국의 장래학과 탐방을 거쳐 준공 되었습니다. 자연장은 자손들이 대상을 두고 찾아오는 매장을 달리 자연 그대로 혹은 토해 볼래는 것이기에 따로 표시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매장을 할 때에는 본교회에 1~2년 이상 출석한 교인만 이용 가능했으나 자연장은 당회장 추천서만으로 모든 교단외 성도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연장이 많지 않은데, 무덤과 비석과 같은 표시가 남는 매장이 아닌 자연으로(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장으로 장례문화가 바뀌었으면 합니다. (김종구 장로, 총원자연장)



• 함양총원농원은 1971년 한 교인에게 기증을 받아 작년 5월부터 개발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개발을 진행하며 관리 측면으로 고구마, 더덕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양총원농원에 계획하신 산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이웃 사랑이 풍성히 실릴 것 기대됩니다. 농원을 개발하며 그 지역 주민들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발 우에 더욱 더 많은 교제가 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함양총원농원은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젊은이들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농원에 방문하여 여러 가지로 이웃 사랑의 열매가 될 만한 것들을 제안하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성 안수집사, 함양총원농원)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다”

메시아의 죽음 43

무슨 일이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겔셋마네로 가셨다. 왜 그곳으로 가셨는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다. 사역의 시작과 끝은 항상 기도였다(막 1:35, 6:46).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겔셋마네 동산에 가신 이유도 기도하시기 위해서였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막 14:32)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곧 기도하고 있으라는 의미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다. 그들의 관심은 십자가가 아닌 사람들의 반응이었고, 자신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피로감으로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다. 기도를 잠시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 번이나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막 14:37, 40). 겔셋마네에서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둔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기도하셨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막 14:35, 39).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적인 안락함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서만 간절히 기도하셨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 14:36). 완전한 인간인지라 십자가 형벌이 주는 수치와 고통, 죽음의 공포가 있었지만 그럴수록 예수님은 더욱 기도하셨다(막 14:34; 요 12:37). 예수님의 기도에는 통곡과 눈물이 있었다. “그는 육체에 겹칠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

원하시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 5:7). 겔셋마네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잠들었던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겔셋마네로 오기 며칠 전, 제자들은 죽은 나사로가 소생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 동시에 이를 시기하여 예수님과 소생한 나사로까지 죽이려했던 종교지도자들의 모습도 보았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 11:25)라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당장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종교지도자들에게 더욱 집중이 있었다. 마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보다는 세상을 더 선호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항상 피곤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다. 이것이 2000여 년 전 한신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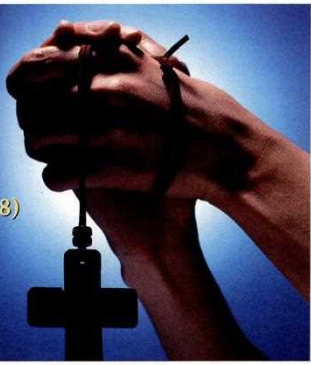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 주었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절정의 순간에 성만찬을 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겔셋마네로 오셨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현실의 문제에 정신이 팔려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 세상의 가치에 따라 부정적 또는 이기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자. 모든 초점을 십자가에 맞추고 무릎을 꿇자. 자기를 부인하고 매순간 주님을 사랑, 주의와 대화를 나누자.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네 영혼 평안해.” 아멘.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4~8)



우리는 항상 생각한다. 이 생각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장 우선하여 생각하는가? 그 생각이 보혜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 자신은 분명하게 드러난다(잠 23:7).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빌 4:4~5).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 평탄하게 사는 행복할 삶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초심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 보혜의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을 걱정하는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

● 신자들의 생각만이 하나님에게는 참으로 중요하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신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을 가지라거나 빛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마 5:13~14). 마찬가지로 생각하라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 되라 즉,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다.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생각은 나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생각이 될 수 없다.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벧전 4:13).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만을 생각하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난다. “기쁘다 이 말이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딤후 2:11~12). 지금 우리의 욕망으로 가득한 생각을 모두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라 내 뜻을 아옵소서”(시 139:23).

●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4~6). 오직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어떤 상황에서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는다는 것이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롬 12:12~14).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며 진리에 순종해야 한다(마 5:44).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낳는다(행 10:22~23).

●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옹호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것이든지 무슨 기쁨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빌 4:7~8). 자기를 부인하고, 새 피조물이 되어 주 안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요 14:26~27).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평화가 임한다(고후 13:11).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은 비방뿐일 것이다(롬 15:3). 그러나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매순간 죄의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아멘.

중단 없는 선교

산소호흡기

를 쫓고 계신
부모님을 병원

에 두고, 아침에 딸을 병원에서 앞당겨 퇴원시켜 놓고, 치매로 누워계신 두 분 시부모님을 맡기고 떠나는 우리 팀원들. 각 가정마다 문제가 많았지만 우리를 허락하셔서 선교지의 영혼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중심을 잡지 않으면 허리를 다칠 것 같은 판야의 비포장 도로를 8시간 달려 도착한 그 곳 사역을 나가 보니 아무도 없고 꼭꼭 닫혀진 대문에서 종기는 너무 한가한 분위기를 우리를 두렵게 했다. '어떻게 하나, 아무도 없는데, 전도 못 할까?' 걱정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들은 문을 열어 환영할 뿐 아니라 마음의 문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들려주는 우리를 성하게 받아들이었다. 아이들에게는 '예수 사랑하심'을 읊듯뿐 아니라 놀이를 통

해서도 암기할 수 있도록 반복해 가르쳤다. 어찌나 빨리 따라하는지! 몸과 손은 흠투성이지만 그들의 눈은 예수님만을 가슴에 담은 듯 반짝고, 더위도 잊고 오직 복음 듣는 것과 찬양에 열심이었다.

얼마나 전할 대상이 많았는지 하루하루의 짧은 시간이 아쉬웠다. 그 곳의 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몇 번씩이나 말해 주었다. 그들이 진정한 주님을 믿고 그 곳에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한다. 그 곳 모두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남겨놓은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환경과 인간의 생각으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판야 길을 걸으며 전도하심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중단 없는 선교를 해야겠다. 얼마나 기쁘지 찬송을 찬만 번 불러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십자가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 번 느낀다.

(박애희(권사, 11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7일(화)~9월 15일(수)	3교구 1팀	박창성
9월 7일(화)~9월 15일(수)	11교구 4팀	김복수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1일(수)~9월 9일(목)	4교구 3팀	임태수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24일(화)~8월 31일(화)	23교구 2팀	김미자
8월 24일(화)~9월 1일(수)	15교구 3팀	김일중

새가족양육부 8월 수료자

예수님만 의지하며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의 때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연교회 청년부 회원인 대학교 무배의 인도로 새가족부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부에서 배웠듯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서 돌아가신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할,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십니다. 늘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 의지로 내 욕심으로 주님과 멀어지는 죄가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늘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값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영경)

헌금, 십일조, 구역예배 모든 것이 궁금에서 주님께 좀더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양육을 받으면서 궁금에서 풀려 편안히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간에는 노력하고 능력만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노력해도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능력을 많이 받았습시다. "시업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늘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 부탁하는 말입니다. 꿈만 같은 24주, 저 자신이 수료를 마쳤다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좀더 주님 경외로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주어진 생활에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노영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요 3:36).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경험과 지식,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전통을 앞세우며 우리는 복음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그것을 모두 버리고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마 16:24). 온 성도가 복음 안에서 연합(시 133:1)하여 일심일뜻으로 예수님과 함께 일보하기 원합니다. (황호)

이모의 꿈이라는 전도로 2007년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딱히 믿을 보다는 이모의 열성에 나오게 되었고, 이왕 나온 거 기독교에 대해 공부해 보자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다나는 동안 몰랐 왔다갔다 하다 보니 많이 빠지게 되어 거의 1년 만인 2008년에 학업을 받고 새가족부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료를 마쳤는데도 마음의 변화도 없고 이만큼 했으니 어찌는 어모한테 덜 미안하다는 생각에 교회랑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평탄하게 지내다가 작년 초 개인적인 일을 겪으면서 "아 세상에 내가 마음을 먹어도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이래서 신을 의지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무렵, 새가족부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내가 직인하고 고백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므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나영)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해결되고 치유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알 수 있게 되었고 이 말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충성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최유진)

우리 주님 앞에 저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매 주일 새가족양육부 예배시간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똑같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부응하여 어찌 부르심을 입지 못한 열매 자매를 돌아보는 데 힘써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세상의 모든 꿈을 버리고 주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힘쓰고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소망합니다. (박영경)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중연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분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1011	남호한	영아부	22		1021	정예재	양육반	21	
1012	최혜윤	영아부	22		1022	채영애	양육반	18	오수옥
1013	이이현	영아부	19		1023	안우열	양육반	22	
1014	김지현	영아부	19		1024	임재복	양육반	5	임남민
1015	안다솔	영아부	3		1025	노승진	홍신반	11	이상금
1016	김혜윤	양육반	1	오정재	1026	노승희	11	이상금	
1017	김백진	양육반	10	김진성	1027	서동혁		9	
1018	박태수	양육반	14	오준경	1028	오혜연		5	안하순
1019	지선미	적용반	25		1029	유진재	형인1부	3	이은정
1020	김영진	적용반	25		1030	이준호	영아부	19	

